

[한인회 소식]

이번 다가오는 10월 3일 토요일(추석맞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2회 김치축제를 엽니다. 지난 번 2007년 회 때 외국인들과 한인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한국 먹거리 문화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는 영사관 재정 부족으로 영사업무까지는 함께하지 못하고 김치축제 행사만합니다. (영사업무 기다리시는 교민님들 참조하십시오.)

지난 1회에 각 교회의 여전도회에서 시간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 주셔서 풍성하게 잘 끝내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해에는 지난 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간소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치 종류도 많은 가지 수보다는 잘 알려지고 인기 있는 10여가지만 만들어서 송편, 만두등과 더불어 시식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인회와 각 교회, UNM 학생회, 한국학교가 연합해서 개최하는 이 행사에 많은 교민들 가족 전체가 참석해 주시고, 주변의 외국인들도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전통혼례와 한복 입어보기, 송편 빚기, 한국무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함께 합니다.

* 한인회 리모델링 마무리 *

그동안 선배님들의 노고로 한인회관을 마련해서 잘 사용해 오는 가운데 공간 활용을 잘 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던 중 창고로 쓰던 곳을 키친으로 개조하고, 건물 바깥에 창고를 따로 마련해서 모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비가 섰던 지붕과 천정 공사, 화장실, 페인트, 에어컨디셔너까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2세 교육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실이 많이 필요한 한글학교나 어버이회 모임과 기타 큰 행사를 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어버이회 모임이 있사오니 지나가는 길에 들러 주시고 보다 발전된 한인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버이회 식사 대접을 위한 봉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 Contents

- 한인회 소식 ▷p.1
- 한국학교 소식 ▷p.3
- UNM 한인학생회 소식 ▷p.4
- 2009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p.4
- 에너지 사용비를 줄여 봅시다 ▷p.4
- 밥이 보약이로다-암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탁 ▷p.5
-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 ▷p.6
- 어떻게 알버커키로 오시게 되었나요(I) ▷p.7
- 샌디아산! 올라가 보셨나요? ▷p.8
-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 ▷p.12
-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용육이의 편지▷p.13
- 생활상식▷p.15
- 가을의 기도 ▷p.17
- 뉴멕시코 한인업소 ▷p.18
- 벼룩시장 ▷p.19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뉴멕시코주 한인회 추석맞이 김치축제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M &
Korean Students Association at UNM
Present**



- Rice Cakes
- Various Kim Chi
- Puppet Show
- Folk Dresses
- Performances

FREE ADMISSION!

Saturday, October 3, 2009 10:00 – 14:00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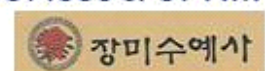
(NW corner of Menaul & Eubank)

Tel 505-271-1777

www.KAANM.com



Sponsored by:
A-1 Oriental Market
A-Ri-Rang Oriental Market
Kim's Oriental Market
Korean Pastors Assoc. of NM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미주한국 학교 연합회 후원으로 제4회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사연수회를 8월 30일에 열었습니다. 남가주 켄리토스 다운니 한국학교의 신영숙 교장선생님과 이윤희 강사님과 함께 한 이번 연수회는 "한국학교의 중요성"과 "시청각 자료를 통한 재미있는 한글교육"이라는 좋은 강의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NM 한인교포 수는 LA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입어 한국학교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연수회 같은 뜻 깊은 행사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통해 저희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신영숙 교장 / Principal Shim



이윤희 강사 / Lee

On August 30th, 2009, NMKLS held the 4th NMKLS Teachers Workshop, sponsored by the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This workshop provided following informative presentations to the teachers and parents: "Importance of Korean Schools" by Ms. Young S. Shin (Principal, Korea Institute of Southern CA - Downey) and "Teaching Korean Using Visual Materials" by Ms. You Kyoung Lee (Teacher, Korea Institute of Southern CA - Downey).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for supporting our school. Without your help, a small school like ours can Korean classes and host special events such as teachers workshops.

청소년 / 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수요일 Wednesdays, 6 - 8 PM

가을 학기 Fall Semester: 2009.09.18 ~ 2009.12.09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0 ~ 2010.05.05

생활 회화 위주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성인반은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 등록을 계속

받고 있으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t's official now. These classes, taught in English with emphasis on conversational Korean, will be on WEDNESDAY nights! We apologize for the delays and last minute changes, but we are glad that this decision was made. Most of you agreed that moving away from the Friday nights was a good idea,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most effective/efficient night. We hope this change offers some schedule flexibility to our adult students with jobs and/or children.

So, if you have not registered yet, it is not too late. We are still accepting new student registrations. Please send email to nm.kls@hotmail.com or call 505-991-2160.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한국어반 Korean Language Classes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미술반 Art Classes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가을 학기 Fall Semester: 2009.09.12 ~ 2009.12.12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3 ~ 2010.05.08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웁니다. 등록을 계속 받고 있으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Saturday classes are taught in Korean, with emphasis o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e are still accepting new student registrations. Please send email to nm.kls@hotmail.com or call 505-991-2160.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rmation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을 눌러 주세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button).

연락처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UNM 한인학생회 소식]

살롱~ UNM 한인학생회 Event Manger 허병석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International Festival과 더불어 한인학생회의 큰 행사 중 하나인 개강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에 대해서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1일 금요일에 한인회관에서 UNM 한인학생회 가을학기 개강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UNM의 기존 한인학생들과 성신여대에서 온 교환학생들, 그리고 이번에 UNM에 입학한 새내기들까지 40~50명의 인원이 모여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함을 축하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가벼운 자기소개 및 게임을 통해서 이름과 얼굴을 익히고 앞으로 있을 더 멋진 만남을 준비할 수 있었고, 모임이 파할 때 다함께 자신의 주변을 깔끔히 청소하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한인회에서 한인회관을 빌려주셔서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흔쾌히 저녁식사까지 마련해주셨습니다. Kim's market에서 경품을 후원해주셔서 함께 했던 학생들이 기분 좋게 상품을 타갔고, 또 한인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특별한 상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UNM 한인학생회를 위해서 돈을 기부하신 한인회장님,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UNM한인학생회는 Albuquerque 한인회와 더불어서 10월 3일에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김치 Festival을 주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UNM 한인학생회가 New Mexico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을비와 함께 일교차가 심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2009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매년 10월에 열리는 행사로 아마도 Albuquerque에서 열리는 가장 유명한 행사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수백개의 형형색색의 Hot air balloon들이 Sandia산을 배경으로 일제히 떠올라 정말 장관을 이루는 행사죠. 희안하고 재미있게 생긴 Balloon들만 볼 수 있는 날도 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10월 3일(토요일)부터 11일(일요일)까지 9일간

♣시간: 평일엔 오전 5시부터

주말에는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는 3시 30분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 13세 이상은 \$6, 12세 이하는 무료

♣주차료: 차 1대당 \$10



{Event} Saturday Oct 3

5:45am - 7:00am Dawn Patrol Show

6:45am - 7:45am Opening Ceremonies

7:00am - 8:30am Mass Ascension

8:00am - 5:00pm ECHO Chainsaw Carving
Championship

2:00pm - 6:00pm America's Challenge Gas Balloon
Race Inflation

6:00pm - 7:30pm Twilight Twinkle Glow

6:00pm - 8:00pm America's Challenge Gas Balloon
Race Launch

8:00pm - 9:00pm AfterGlow Fireworks Show

에너지 사용비를 줄여 봅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직도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구를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꾸거나 냉장고를 지하실에 옮겨 놓는 것 외에도 아직 많은 절약방법이 있습니다.

1. 냉방과 난방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료의 약 40%는 냉방과 난방비입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겨울에는 실내의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구멍이나 틈새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대신 밖에 있던 찬 공기가 집안 아래쪽의 틈새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에너지 사용량도 높게 되고 집안도 쾌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공기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코르크나 폼보드, 실런트 등으로 틈새를 메웁니다. 또한 단열재의 훼손, 마모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수합니다.

2. 물 사용

집에서 사용하는 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국 내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2013년쯤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다 사용에 대한 고액 요금이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샤워나 설거지, 세탁의 경우에는 물 사용뿐 아니라 heating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1) 똑똑 떨어지는 물을 막습니다.

이것은 물을 절약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년에 약 \$70정도의 수도세를 절약하게 해 줍니다. 또한 샤워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여주는 Low-flow showerheads를 사용하면 일 년에 \$265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기도 물 사용이 적은 변기로 대체할 경우 일 년에 약 \$9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Water heater의 온도를 화씨 120도에 맞추고 온수 히터와 파이프를 단열재로 씩읍니다.

3. 재활용

종이와 플라스틱, 쇠, 유리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 프린터 카트리지, 전자 제품 등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Earth911.com 이나 앨버커키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www.cabq.gov의 solid-waste management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전기 사용

전기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구는 형광등으로 갈아 끼우고, 가전제품은 energy-efficient 모델로 바꿉니다. 냉장고의 경우 side-by-side 모델이 top- or bottom-mounts 모델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세탁기의 경우 top-loading 세탁기가 front-loader 보다 전기와 물을 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TV의 경우는 plasma TV가 LCD TV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가장 손쉬운 절약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plug를 뽑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hibernate 시켜 둡니다.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는 전구는 LED lights를 쓰고, 방을 나갈 때는 불을 끕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는 Consumer Report 10월호를 참조하였습니다.)

밥이 보약이로다 {암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탁}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영양팀

‘밥이 보약(補藥)’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약과 음식의 근본이 같다”고 해서 약식동원(藥食同源), 식즉약(食卽藥)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을 따로 먹을 필요 없이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그것이 곧 보약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음식이 웰빙 식단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비롯한 여러 만성질환은 음식을 비롯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먹거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더 잘 먹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일부 식품만을 편중되게 섭취함으로써 오히려 영양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항암식탁 프로젝트’라는 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항암식품으로 알고 즐겨 먹었던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식탁으로 상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잡곡밥은 꼭 먹어야 한다?

잡곡에 함유된 섬유소가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더라도 심장병과 당뇨병 등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떨어뜨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쌀밥의 암 위험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화흡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백미보다 잡곡밥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된장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발효 된장은 암 예방 효과가 있어 권장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염분과 질산염 등이 많이 들어 있어 위암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루 81g(된장 4큰술)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된장찌개 조리 시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첨가하여 조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암을 예방한다?

콩을 원료로 한 두부에 함유된 생리 활성 물질인 이소플라본, 피트산, 사포닌 등은 대표적인 항암성분으로 하루 30mg 이상의 이소플라본 섭취는 암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순두부찌개와 두부조림으로 섭취하는 두부의 양이 주당 4-5회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단, 조리 시 지나친 염분의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생선은 좋은 항암식품이다?

생선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 암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유(fish oil)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으나 아직 역학적 증거는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해 생선의 섭취를 적극 권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직화(直火)가열된 생선은 표면의 발암물질 생성으로 인하여 위암,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선을 염장할 경우 발암물질인 N-니트로사민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후두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생선을 조리할 경우 직접 불에 구워 먹는 것은 피하고 염장 생선의 섭취는 되도록 삼갑니다.

☞ 전통발효 식품인 김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김치는 십자화과 채소와 양념 등의 재료가 어우러져 숙성을 통해 발효산물, 유산균 등이 생성되므로 재료와 제조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염도가 높은 김치의 과다한 섭취는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치는 가능한 싱겁게 담그고 다른 식품과 균형을 이루어 과잉섭취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늘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암의 발생과 관련된 실험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마늘의 주된 성분인 알리신은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엑기스 형태의 보충제보다는 식사에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도 파괴되어 효과가 저하되므로 생마늘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지만 냄새가 강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마늘을 다져서 요리하거나 마늘 초절이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토마토는 최고의 항암 과일이다?

생토마토와 토마토 가공식품 모두 암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그러나 가공형태에 따라 효과 달라지므로 생리 활성 물질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신선한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요구르트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생리 활성 물질인 유산균과 칼슘의 보고인 요구르트의 섭취는 암 예방 가능성은 있지만 연구결과에 의한 역학적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장의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과량 섭취하였을 경우 열량과 총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저지방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은 수 있듯이 특정 식품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런 음식을 골고루 이용하여 만든 건강한 식탁을 통해 균형된 식생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출처: SNUH WEBZINE

자유 의 여신상의 모델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왼손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자유는 세계를 비춘다.”
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 프랑스 국민이
미국의 독립 1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 기부한 이 여신상은
“FA 바로톨디” 라는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각이 완성되기 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제작을 요청받은 바로톨디는
“자유” 라는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헤매야 했습니다.
여러 미술가와 조각가들을 찾아다니며
추천을 받았고
과거의 위대한 영웅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마땅한 모델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가 것처럼 찾아 헤매던
자유의 여신상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의 영감은 적중했고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여신의 얼굴은
8 등신의 미인이 아닌
소박한 작자의 “어머니” 였고
만 인류의 “어머니” 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사랑밭 새벽편지 중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16)

어떻게 알버커키로 오시게 되었나요(1)

김기천 목사

"기내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튜어디스는 기내 방송을 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반응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의사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스튜어디스는 다시 방송을 내보냈다.

"기내에 간호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다. 이어 스튜어디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주고받은 후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간호사는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내에게 얼마만큼 아픈지 가늠하는 질문을 던졌다. 간호사는 아마도 중간 정도의 대답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고로 아프다는 아내의 대답에 흠칫 놀라며 간호사는 스튜어디스에게 환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는 자신의 진단을 전했다. 스튜어디스의 얼굴이 긴장되면서 기장실로 달려갔다.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온 스튜어디스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앞으로 종착 공항인 달라스까지 가려면 한 시간은 넉히 걸린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버커키'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릴 것이냐는 제안이었다.

'알버커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했다.

한국을 떠나기 한 주일 전쯤이다. 감리교 신학교 82학번 졸업생들 중에 주로 예비역 학생들로 구성된 모임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들은 신학교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왔었고 나는 그 당시 복학해서 이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정기 모임에서 '귀납적 성경공부'를 정기적으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맺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이었다. 아마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다.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송종남 목사님이 미국 알버커키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송종남 목사님은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알던 분이다. 그러나 '알버커키'란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름의 생소함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미국에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본래 나는 지리에 관한 지식이 남보다 뒤질 뿐 아니라 지명을 외우는 데는 썩행이다. '알버커키'란 이름을 들으면서 내가 기껏 생각해 낸 것은 지명 끝에 두 글자 '쿠키' 뿐이었다. '쿠키' 즉 '과자'란 단어만 머릿속에 담아 둔 것이다.

스튜어디스가 '알버커키'란 이름을 제시했을 때에는 이미 내 머릿속에 한 주전에 들었던 '알버커키'란 이름



이 이미 지워져버린 상태였다. 어슴푸레 남아 있는 것은 '쿠키'란 단어였다. 아마도 최악의 고통을 견디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 때문이었으리라. 스튜어디스가 제시한 '알버커키'가 한 주 전에 들었던 'OO쿠키'란 이름과 같을 것이라고 자신을 확신시키고 있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도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 응급환자인 아내와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위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 송종남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다는 지역이 알버커키가 분명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확신시키고 있는 중에 스튜어디스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한다. 워낙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알버커키도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다. 스튜어디스의 재촉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아마도 내 안에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한 확신이 찼던 것 같다. 비행기는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침내 일본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예정 목적지인 달라스가 아니라 뉴멕시코 알버커키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미군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비워있던 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비행기 맨 뒷좌석으로 옮겨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내를 실은 들것을 따라 우리 가족은 기내 모든 승객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뒤에서 앞 쪽으로 걸어 나왔다. 이미 승객들은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고문당하듯 비행기 안에 갇혀 지냈다. 그들은 모두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달라스에 도착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달라스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그리면서 고문당하는 것 같은 비행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도착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감히 승객들의 얼굴을 쳐다 볼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나의 아픈 아내를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참아주는 저들이 고맙기까지 했다.

비행기 문은 열렸지만 승강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계단만 늘어져 있었다. 계단에 발을 디딜 때 알버커키의 더운 바람이 몸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짙은 초록의 군인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 구급차에 타고 얼굴도 볼 수 없는 운전자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송 목사님이 있을거야"란 확신과 "만일 아니라면"이란 의심이 시계추처럼 쉬지 않고 교차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러브레이스 병원 응급실이었다. 아내는 진찰 받기 위해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젠 병원 대기실에 남겨진 두 아이와 함께 이 낯선 곳에서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자신을 확신시켜왔던 것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병원 대기실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렸다. 이미 나름대로 추리를 해 놓았다. 만일 송 목사님이 이곳에 있다면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되었을 것이고 미국 감리교회

연회에 연락하면 송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추론이었다. 물론 예상은 적중했다. 연회를 통해서 알게 된 번호로 송 목사님과 연락이 닿았다. 송 목사님은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산다고 하면서 곧 이리로 오겠다고 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단 결과가 나왔다. 맹장이 터졌다는 것이다. 아내는 곧 수술에 들어가야 했다.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의사가 실수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다. 아내는 아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간호사가 부른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민국 직원의 전화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보통은 공항에서 이민국 심사를 통해서 입국을 하는데 우리는 아내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이민국 심사도 없이 병원으로 직행한 셈이다.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 이민국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다. 가족 여권을 보여주었더니 "1999년 4월 22일"이란 입국 도장을 찍어 주었다.

진찰 후 두 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다고 할 수 없지만 내 주관적인 견해로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이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으니까 말이다. 회복되는 동안 아내는 병실에 있었고 아이들은 송 목사님 사택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송 목사님이 내준 차를 이용해서 병원과 사택을 왔다 갔다 했다. 잠은 사택에서 잤다.

아내가 병실에서 회복되는 동안 주일을 이곳 알버키키에서 보내게 되었고 송 목사님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받았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란 복음 성가를 불렀던 것만 기억난다. 한 번은 송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한 음식점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프론티어"란 이름의 음식점이었다. 그곳에서 '버리토'라는 멕시코 음식과 고추로 스프를 만든 것을 먹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으로 입에 맞았다. 아마도 매우 맛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음식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에 관계 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병원에 온지 거의 한 주일쯤 지났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는 퇴원해서 보스턴으로 가도 된다고 했다. 엉거주춤 걷는 아내는 부축을 받으며 러브레이스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날로 우리 가족은 집이 있는 보스턴으로 돌아갔다.

샌디아산! 올라가 보셨나요?

이경화 장로

Sandia산은 알버키키 도시 동쪽에 바람막이 병풍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간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산을 매일같이 보면서도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 탓인지 그 산의 아름다움이나 산이 우리에게 베푸는 많은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가운데서 사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오랜 세월을 알버키키에 살면서도 샌디아산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샌디아산 하이킹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었다. 가을을 앞두고 등산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어서 광야의 소리 독자 여러분께 샌디아산을 더 가까이해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산을 지면을 통해 소개 하고자 한다.

Sandia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동서로 약 10마일, 남북으로 약 30마일되는 지역이 된다. 샌디아산은 Cibola National Forest에 속하는 Sandia Ranger District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Sandia Ranger 홈페이지 주소는 www.fs.fed.us/r3/cibola/districts/sandia.shtml). 산 속에는 14곳의 Picnic Ground가 있고 하이킹을 할 수 있는 30여개의 산길(Trail)이 있다. 산길의 총 연장거리는 100여 마일에 이른다. 샌디아산에서 볼 수 있는 꽃과 나무를 포함한 식물의 종류는 500여종이 되고, 200여종의 새를 위시하여 많은 종류의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먼저 샌디아산의 이름부터 소개를 해보기로 하자. Sandia란 이름은 스페인어로서 수박(Watermelon)을 의미한다. 16세기경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와서 산을 보고는 마치 수박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이 보인다고 Sandia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저녁 석양이 화강암의 산 절벽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붉게 보인 산이 수박의 속 부분 같고, 능선의 초록색 나무들과 능선 밑의 흰 색깔의 퇴적층 석회암 무늬가 수박 껍질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의 원주민 인디언이 부르는 산의 이름은 따로 있다. 샌디아 푸에블로 인디언은 "큰산", "Big Mountain" 이란 의미로 "Bien Mur"로 부르고 또 다른 인디언이 부르는 이름으로 "Oku Pin"이란 이름도 있는데 그 뜻은 거북이란 뜻이다. 리오 그란데 강 북쪽에서 샌디아 산을 보

면 거북이가 기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질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옛날 땅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바다물에 잠겨서 퇴적층이 생겼고 그뒤엔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육지가 되었고 그 다음 지각이 비스듬히 2만피트 가량 올라가고 남북으로 단층이 일어나서 지금의 산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샌디아산 위에는 바다에 살던 산호나 조개의 화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지질학자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퇴적층 석회암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 높이가 해발 10,678 ft(3,255m)가 되니까 2,750m 높이의 백두산보다 1,657 ft(505m)나 더 높은 산이 된다. 이렇게 높은 산이 옛적에는 바다 밑에 있었다니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Sandia Peak Tram

샌디아산을 가장 짧은 시간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케이블카(Tram)를 타고 관광하는 것일 것이다. 이 Sandia Peak Tramway 케이블카의 케이블 길이는 2.7마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한다. Tramway Blvd가 끝나는 북쪽 끝 Stop sign 있는 곳에서 우회전해서 Tramway Road로 올라가면 Sandia Peak Tramway 건물이 나온다. 여기서 트램을 탑승하면 해발 6,559ft에 있는 베이스 터미널에서 산 위의 해발 10,378ft에 있는 터미널까지 15분 만에 올라간다. 트램을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 보는 험준한 절벽과 계곡의 웅장한 경치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위의 온도는 대략 화씨 20도정도. 산 아래보다 더 서늘하므로 복장에 유의할 것을 권한다.

산위에 올라가 트램에서 내리면 Visitor Center가 있고 샌디아산에 관련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나무계단을 거쳐서 내려가면 도시를 포함해서 리오 그란데강을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 Deck이 있다. 옆에는 High Finance Restaurant, 식당이 있다. 트램을 타기 전에 식당에 예약을 해두면 트램 승차 Ticket요금에 할인이 되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이곳에서 Sandia Ski Area로 연결되어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식당 북쪽 편 절벽에서는 Hang Glider를 타고 이륙하는 장면을 볼 때도 있다. 이곳으로 연결되는 산길로 샌디아 정상으로 가는 Crest Trail(#130)이 있다. 왕복 거리는 약 3마일된다.

1966년에 완공된 이곳의 케이블카는 알버커키에 살고 있던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 중 한 사람이 Ben Abruzzo, 1978년 Gas Balloon, Double Eagle II를 타고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던 사람이다. 그는 뒤에 태평양 횡단에도 성공했었다.

Sandia Peak Tramway를 타러오는 관광객 수는 매년 27만 5천명 정도로 이곳은 알버커키의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되고 있다. 운행 시간과 요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은 정비관계로 저녁에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요일 방문할 때는 확인을 미리 하길 권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sandiapark.com)



(사진 1) 샌디아파크 트램카. 50명을 태우고 15분 만에 정상까지 올라간다.

Sandia Crest

샌디아산에 있는 여러 곳 중에서 일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곳 샌디아 산 정상(Sandia Crest)이다. 이 정상까지 자동차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도로가 잘되어 있다.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고 그 밑에는 기념품과 Fast Food를 취급하는 Crest House가 있다. 이곳에는 샌디아 산림 관리직원 레인저(Ranger)가 상주하는 Desk가 있어서 샌디아산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해발 10,678 ft의 정상에 올라가 서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트여서 Panoramic한 경치가 시야에 들어온다. 정상에는 고산식물에 속하는 여러 가지 꽃들을 볼 수 있다. 북편은 TV와 FM방송국의 송신 안테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 주차장 남쪽에서 능선을 따라 시작되는 Crest Nature Trail은 왕복 0.2마일 밖에 안 되는 짧은 Trail이지만 시멘트로 덮은 길이어서 Wheelchair를 탄 사람도 즐길 수 있고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다. 산의 자연생태에 관련되는 과학지식을 주는 안내판이 곳곳에 있어서 좋은 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절벽 밑을 내려 보면 La Cueva Canyon을 보게 된다. 돌로 덮힌 가파른 계곡을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La Luz Trail도 보인다. 험준한 절벽에는 여러 종류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자라고 있다.



(사진 2) 샌디아산 정상에서 내려 본 La Cueva Canyon. Zig-zag 로 올라오는 La Luz Trail이 보인다.

샌디아 정상으로 드라이브하는 길을 소개한다면 먼저 알버커키시에서 I-40 동쪽으로 약 7마일 가다가 Cedar Crest/Tijeras Exit 175로 나와서, 북으로 가는 14번 도로로 Cedar Crest를 거쳐 약 6마일을 가서 536번 도로를 만나 좌회전 후, 12마일을 올라가면 정상에 이른다. 소요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샌디아 정상 주차장 주차비는 \$3.00이며 National Park Annual Pass 또는 Golden Age Passport가 있으면 면제된다. 주차장에서는 자동차의 Remote Key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이곳에 있는 TV안테나 출력이 강한 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Kiwanis Cabin

샌디아산 정상에서 Crest Nature Trail만 보고가기에는 너무 아쉽다. 많은 사람들은 시멘트 보도가 끝나는 Trail 끝에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연장되는 130번 Trail로 계속 내려가서 1/2마일 거리에 있는 Kiwanis Cabin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돌계단을 올라간 뒤에 산길은 숲으로 들어서서 능선을 뒤로하고는 내리막길로 가는데 이 산길로 계속 가면 케이블카, 즉 Tram Terminal로 가게 된다. 1/2마일정도 되는 곳에서 94번 산림도로와 교차하는데 여기서 Kiwanis Cabin으로 가는 안내판이 있다. 능선 쪽으로 수백 야드 올라가면 능선에 세워져 있는 돌집, Kiwanis Cabin이 나온다. 이 돌집은 1930년경 대공황시기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직된 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라고 하는 단체가 이 지역의 Kiwanis단체의 도움으로 지어놓은 것이다. 한번은 교우 여러분과 하이킹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일행은 Kiwanis Cabin에 막 도착한 때여서 이곳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우리에게 좋은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곳이다. 이곳 역시 아주 좋은 전망대가 된다. Tram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Domingo Baca Canyon과 알버커키 시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North Sandia Peak Trail

샌디아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가는 130번 산길인데 방송안테나가 있는 곳의 남동쪽 코너에 Trailhead가 있다. 안테나 지역 담장 옆으로 1/2마일 정도 북으로 가면 산의 능선과 함께 서서히 내려가면서 옆길로 비켜나와서 전망 좋은 곳을 내려 볼 수 있게 된다. 뽕죽한 봉우리라고 해서 Needle이라고도 부르는 봉우리가 인상적이다. 약 1.2마일 지점에서 산길이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분기점이 나온다. 똑바로 가면 산길은 내려가 Del Agua Overlook에 도달하지만 하이킹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왼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할 것을 권한다. 수백야드를 가면 전망 좋은 자리가 나온다. Shield라고 불리는 암벽을 볼 수 있다. 또 그곳에서 수십 피트 서쪽으로 가면 Aspen숲으로 덮힌 Del Agua 지역을 내려볼 수 있다. North Peak로 더 갈 수도 있으나 그 길은 위험한 까닭에 이 지점에서 되돌아가는

코스를 권한다. 왕복 4마일코스가 될 것이다.



(사진 3) 샌디아산 북쪽에 있는 Needle봉우리



(사진 4) Sandia Crest 북쪽에 있는 #130 Trail. Sprus, Fir, Aspen나 무숲으로 덮힌 산길.

Tree Spring Trail (#147)

샌디아산 동쪽에 서산의 능선까지 올라가는 산길이다. 536번 도로로 5.7마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왼편쪽에 나온다. 여기서 시작되는 147번 Trail은 샌디아의 산등성 Saddleback이 되는 정상으로 안내한다. 길이가 약 1.8마일 짧은 거리인데, 능선위에 올라서서 산 서편을 내려 볼 수 있고 정상을 정복했다는 성취감을 체험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8,480 ft 지점에서 9,450 ft까지는 약 1000피트의 Elevation Gain을 요구하므로 어린 아이에게는 힘든 코스이다. 수풀 속 그늘로 걸지만 자주 시야가 트인 부분이 많아 계곡을 볼 수 있고 야생화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간일도 있는데 낙오자 없이 모두 전 코스를 함께 마친 경험도 있다.

La Luz Trail (#137)

샌디아산에 있는 산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나 또한 가장 힘든 Trail이다. 샌디아산 서북쪽에 있는 Juan Tabo Picnic Ground에서 시작해서 절벽을 올라간다. 길이가 8마일인데다 Elevation Gain이 3,000 ft나 되기 때문에 왕복하기에는 매우 힘든 코스가 된다. 샌디아산의 웅장한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산길

이다. 산길이 끝나는 곳은 Tramway Terminal이므로 Tram을 타고 올라가서 이 산길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걸어 올라가서 Tram을 타고 내려오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 한대는 Trailhead 지점에 다른 차는 Tramway Terminal에 주차해서 shuttle이동 방법을 써야된다. 자신의 체력에 자신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걷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동반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이 Trail에서는 매년 8월 마라톤 대회(La Luz Trail Run)가 열린다. 금년에 1등을 한 선수는 1시간 22분 만에 산 정상까지 8마일을 뛰어 올라갔다고 한다. 믿기 어려운 기록이다. 참가한 선수 중 약 300여명의 대다수는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의 기록에 머문 것을 볼 수 있다.

Elena Gallego Picnic Area

이 곳은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알버커키의 뒷뜰이라 해도 될 것 같다. Academy Rd와 Tramway Blvd 네거리에서 북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Simms Park Rd로 들어서서 동쪽으로 1.3마일 정도가면 엘레나 가에고 피크닉 지역이 나온다. 이곳은 알버커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비로 주중은 \$1, 주말은 \$2을 받는다. 관리인이 상주하지만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입구에 있는 Box에서 봉투를 꺼내 요금을 넣어 지정된 통에 넣고 봉투에 붙어있던 영수증을 떼어 자동차 dashboard에 두면 된다. National Forest나 National Park에서 쓰는 Pass는 적용이 안 된다. 여러 개의 하이킹 Trail이 얼켜져 연결되므로 각자의 시간과 체력에 맞추어 하이킹 코스를 정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일행의 하이킹으로 좋은 곳이다. Pinon, Juniper 나무사이로 자주 나타나는 다람쥐, 산토끼와 노루는 어린 이들에게 하이킹의 재미를 더해 줄 것이다. 북쪽에 있는 Domingo Baca Canyon으로 가는 #230산길로 1마일쯤 들어가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한 산길코스다.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더 가깝게 보일 것이다. 단지 이곳은 그늘이 없는 Open Space여서 뜨거운 여름 낮보다는 덥지 않은 아침 또는 봄과 가을철이 더 좋다.



(사진 5) Elena Gallego Picnic Ground에서 보는 샌디아산.

Cienega Picnic Ground

어린아이를 가진 가족에게는 시냇물이 흐르는 피크닉장소가 더 인기 있을 것 같아서 이곳을 소개한다. 이곳은 산디아산 동쪽 입구 근방에 있다. 536번 도로로 1.2마일지점에 원편으로 들어가는 Cienega Picnic Area를 가리키는 간판이 나온다. Sandia National Forest Sign이 나온 다음 처음 보는 간판이 될 것이다. 좌회전해서 들어가자마자 또 한번 더 좌회전 하고 1/2마일 들어간 후 T자로 만나는 길에서 우회전 하고 산으로 올라가면 주차장에 이른다.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는 #148 Cienega Trail은 산의 능선까지 6마일이나 가지만 가족 피크닉으로는 1/2마일 내외의 시냇가에서 하이킹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Doc Long Picnic Ground와 Sulphur Canyon Picnic Ground도 이곳에 인접해 있는 비슷한 Picnic Ground다.

Pino Trail (#140)

산 서쪽 6500 ft 높이의 Elena Gallego Picnic Ground에서 시작해서 9200 ft 높이의 산디아산능선까지 올라가는 4마일 거리의 Trail이다. 처음 1마일은 Pinon, Juniper 나무가 있는 Picnic Ground 지역을 걸지만 곧 National Forest로 들어서면서 Ponderosa Pine숲의 그늘로 들어서고 다음으로는 전나무와 Spruce숲으로 걷게 된다. 8000 ft 높이에 이르러서는 Aspen나무 숲이 나타나고 Saddleback 산등성이에 이르면 Oak나무 숲이 된다. 이곳 정상에서 산 넘어 동쪽 Cedar Crest의 경치를 보게 된다. 여기서 Cienega Trail과 130번 Trail과 연결된다.



(사진 6) Pino Trail의 1마일지점에 있는 안내판. 이곳에서 산의 능선 saddle지점까지는 3마일이 된다.

이밖에도 Montgomery Blvd가 끝나는 곳 근처에서 시작되는 Embudito Trail과 Indian School Road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Embudo Trail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길로 권하고 싶은 잘 알려진 산길이다.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많은 Trail과 Picnic Ground가 더 있음을 지적하고 여기서 끝을 맺고자한다. 샌디아산을 올라가면서 산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고마운 것들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예술을 감상하는 시간도 되길 바란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 이름(시립도서관에 있음)과 웹 사이트 등

참고사항을 아래에 몇 개 적어두었다. 본인이 Sandia 산을 하이킹하면서 찍은 사진을 Website에 올려 두었는데 그 주소도 함께 적었다.

Website (Photo Blog Page):

picasaweb.google.com/hikingnm/

Book: Hiking Trails of the Sandia & Manzano Mountains. By Kay Matthews, 1995

Book: Best Hikes with Children in New Mexico. By Bob Julyan, 1994

Website(Sandia Mountain Hiking Guide):

www.sandiahiking.com

Website(Elena Gallego Picnic Ground):

www.cabq.gov/openspace/elenagallegos.html

샌디아산 지도(Sandia Mountain Wilderness) 구입처:

Cibola National Forest Office

2113 Osuna Rd NE, Albuquerque, NM 87113-1001

Phone: (505) 346-2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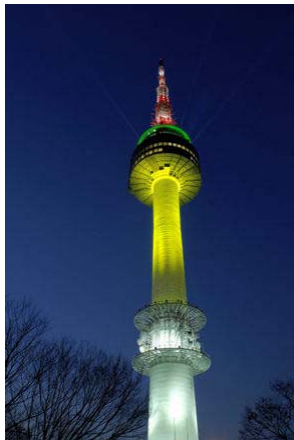
(Osuna Rd/ Chappell 사거리에서 북쪽에 있음)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

김준호 장로

내가 정만영 박사님을 만난 것은 1960년, 국군에서 막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하였을 때였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서울 공대 3학년에 복학을 하고 보니, 입대 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군대에 함께 갔던 친구들도 더러 있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 하긴 했지만, 텅 빈 머리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서 넣어야 할 지 아주 막막하였고, 또 어느 때는 한심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전문 과목들을 택해서 들어야 하는 가운데 정 박사님의 과목을 하나 듣게 되었다. 그 과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Microwave Technology였던 것 같다. 정 교수님은 때 시간 시간 정성스럽게 강의를 준비하셨고, 또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정박사님의 강의는 공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던 내가 마음을 수습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을 되찾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더러,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는 활력소가 되었다.

말로만 들던 Microwave를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Waveguide를 조립해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던 강의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정박사님은 특별히 나에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 그때 정박사님은 원자력 연구소 전자 공학 실장



님으로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된 나와 의 사제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정박사님의 주선으로 원자력 연구소 전자 공학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그분의 지도하에 몇 가지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60년대 초반기에 한국의 전자 산업은 아주 미약한 상태였다. 박대통령의 세계 무역 진출에 관한 정책은 전자 산업이 먼저 발달되고, 과학 기술이 이것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책정되었다.

최형섭 박사님이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면서부터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 운동과 새 기술 개발 연구는 전례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때 많이 유행하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개발 소발” 하지 말고 일본처럼 copy를 해야 한다는 측과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개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박사님은 Transistor 개발연구에 나를 팀장으로 택해주셨다. 나는 즉시 W. Shockley의 논문을 비롯해서 그때까지 출간된 여러 전문 논문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정박사님과 함께 우리들의 연구 계획과 방향 설정, 그리고 수집된 논문들을 평가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확보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Transistor개발 연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한 단계 한 단계 연구의 진척을 보게 되었다.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Single junction을 가진 diode가 아니고 double junction이 있는 transistor였다. Diode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junction을 만들 수 있었는데 transistor는 만만치가 않았다. Solid diffusion의 문제는 이 연구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Diffusion Furnace를 켜놓고 온도가 Equilibrium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전이 되면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에 참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였었다. 여러 변수를 constant로 놓고 풀어놓은 solid diffusion 방정식은 실제로 아무 쓸모가 없었다. 한가지 방법은 온도, 시간, Dopant의 양등을 고정시키고, diffusion depth를 재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나타났다. PNP transistor를 만들 때와 NPN transistor를 만들 때 P type과 N type dopant의 diffusion speed가 다르고, silicon substrate의 impurity양에 diffusion depth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가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다시 며칠동안 연구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하며 지냈고, 정박사님이 또한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우리들과 같이 지내셨다. 급기야 transistor action을 oscilloscope로 측정할 수 있는 개가를 올렸고, 이런 고생 가운데서 정박사님이 고대 하였던 연구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 연구 결과가 전자공학회 학회지 3권 2호(1966년 4월)와 3권 4호(1966년 12월)에 발표되었다.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박사님과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그분의 끊임없는 투지력과 통찰력, 그리고 인내심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공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즈음에 미국의 Johnson 대통령의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로 있었던 Honig 박사가 수행원들과 함께 한국의 전자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한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정박사님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셨고, 나도 영광스럽게도 정박사님을 수행하여 한국전자 산업 부흥계획서를 만드는데 동참하게 되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처는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과학기술과 전자 산업을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하는 산업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다. 우리들은 그때 미국의 현황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고, 특히 일본의 전자 산업이 2차 대전 후 거의 백지와 같은 상황에서 MacArthur 장군의 큰 호의로 미국의 여러 특허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조그마한 portable radio를 제작토록 시작시켰던 것이다. 이 radio는 처음에 일본 국내용으로 시작되었지만 너무 많이 만들게 되어서 처분이 곤란하게 되자, 다시 미국에 협조를 구해서 미국으로 싣아 수출하도록 허락을 받았었다.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미국의 너그러운 호의로 그들의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오늘의 일본처럼 괄목할 만한 경제 강국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정박사님을 옆에 모시고 다니면서 정박사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전자 산업에 관한 고견에는 탄복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의 한국 전자 산업은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정박사님은 나와 함께 고생하시면서도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다.

또 한가지를 언급하자면, 동양 TV 방송국을 설립할 때에, 남산의 TV안테나와 부산의 TV안테나를 정박사님이 설계 하시고 제작하셨는데, 정박사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했던 것도 내게는 잊지 못할 일이다. 이 공준선 설계와 제작 논문도 전자공학회지 3권 1호(1966년 1월), 2권 2호(1965년)에 발표되었다.

나는 TV방송 Signal의 field intensity를 남산을 시작점으로 해서 인천지방, 의정부지방 그리고 수원 지방을 다니면서 측정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TV청취 구역을 결정하였다. 부산의 TV 안테나는 영동에도 설치하였는데 방송 energy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cardioid pattern 안테나를 제작하고 방향을 조정하였었다. 그때 나는 난생 처음 부산을 방문하였다. 그렇게

맛있다는 부산의 생선회를 맛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박사님을 실망시킨 일화는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다. 현재 남산에 명물로 서있는 Tower는 그 때 우리들이 시작했던 것을 다시 멋있게 보완하고 확장하여 완성한 것이다. 또한 부산 영도에 설치된 TV 안테나도 우리들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나는 정박사님처럼 훌륭한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로서 선구자이신 참 스승을 만나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또 그 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그 분과의 만남과 그 분께 받은 영향으로 나도 평생 과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감히 이 지면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분의 독특한 경상도 사투리(?)와 유머는 때로는 지쳐있는 나에게 피곤을 덜어주는 약과 같았다.

많은 과학 인재들을 양성하시고, 한국의 전자 산업 육성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정박사님의 공로를 치하하고, 제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분의 여생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가운데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용육이의 편지-

이 글은 서울시 초등학교 글짓기대회에서 1등을 한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육이'의 글 전문입니다.
91년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리고
당시에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다시 2004년에 머니투데이를 통해 한번더 알려졌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회자되면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감동의 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육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구요.

우리는 별집에 살아요.
별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박스만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 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 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구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옥아, 내가 너를 용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찢 게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구요.
몸이 아파서 누워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 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 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 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다섯 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퍼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 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애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원도 주셨구나"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구
여기서 계속 사는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 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시고 나신 것이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욱아,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아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생활상식}

『은수저의 색깔이 변했을 때...』



은도금한 수저와 포크 등이 더러워졌을 때 자칫 손질
을 잘못하면 도금이 벗겨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우유에 1시간 정도 담갔다가 꺼내 마른 헝겊
으로 닦으면 도금도 유지되고 깨끗해진다.

빛깔이 흐려질 때마다 이렇게 손질을 하면 항상 반짝
거리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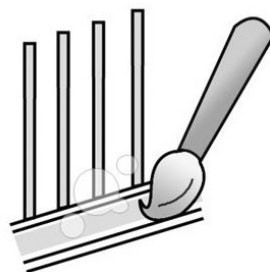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린다구요?』

욕실의 거울은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김이 서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충 물을 뿌리거나 문지르면 마르고 난 뒤
얼룩이 생겨 보기 흉해진다.

거울에 김이 서리는 걸 막고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거
울에 비누칠을 한 뒤 마른 걸레로 닦아보자.

『붓 한 자루로 알루미늄 새시의 먼지를 제거하자!』



알루미늄 새시의 틈새에 끼여 있는 먼지는 공간이 좁
아 사이사이를 청소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러나 붓 쓰는 붓 한 자루, 물만 있으면 생각보다 쉽
게 해결할 수 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준비해두고 붓에 물을 적서 닦아주
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구석구석 닦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마른 걸레로 마무리 한다.

이때 붓은 좀 거칠거칠한 것으로 해야 먼지가 한쪽으

로 잘 모아지고 쓸어진다.

『블라인드 손질하기.』

천이나 부직포로 된 것을 물세탁이 가능하다.
중성세제에 30분~1시간 정도 담가둔 후 손으로 살살 주물러가면서 뻐다.

여러 번 행귀서 그대로 걸어 말리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세탁하는 것이 좋다.

알루미늄이나 금속 소재는 면장갑을 이용해 닦는다.
면장갑에 세제를 묻히고 닦은 후 물로 세척하면 된다.
마지막에는 마른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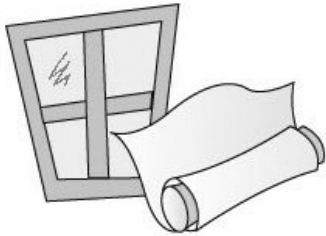
『벽지에 묻은 기름은 맥주거품으로...』

명절을 지내고 나면 여기저기 음식준비로 기름때가 끼기 마련이다.

아무리 청결히 한다 해도 곳곳에 기름때가 남는데 특히 벽지에 묻은 기름은 보기도 안 좋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럴 때는 먹고 남은 맥주로 간단히 해결하자!
맥주를 행주에 조금 묻혀 살살 문질러보자.
힘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창의 찌든 때는 램으로...』



찌든 때가 낀 유리창에 우선 세제를 뿌린다.
그 위에 램을 붙이고 약 10분정도 가만히 둔 후 램을 벗겨내고 걸레로 닦아내면 간단하게 때를 제거할 수 있다.
램을 씌워 때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쉽게 제거되는 것이다.
환풍기에 낀 기름때도 같은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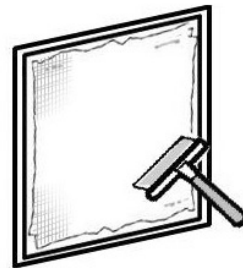
『습기 없이 보송보송한 차안, 이유가 뭘까?』

차안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습기제거제를 사용하면 쉽게 제거되지만, 여름 내내 차안에 구비해놓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으로 참숯을 차내에 두어도 좋다. 숯은 습기뿐만 아니라 냄새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참숯은 습기 제거나 공기 정화 외에 운전자의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자동차의 의자 밑이나 선반에 500g~1kg 정도의 숯을 놓아두면 숯에서 발산되는 음이온이 운전자의 정신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덜어주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습기를 없애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운전 후에 마른 신문지를 차내 바닥에 깔아두는 것이다. 습기가 배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효과도 좋다. 하지만 하루 이상 신문지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습기를 잔뜩 머문 신문지를 차내에 그냥 방치할 경우 차내의 온도로 인한 수분 증가로 실내 철관 부분의 부식을 촉진시켜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방충망 청소할 때는 이렇게...』



방충망은 쉽게 더러워지는데 닦아내고 쉽게 청소가 되질 않는다.

이럴 때는 망 한 쪽에 신문지를 붙이고 반대쪽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보자.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기 청소할 때는 식초물로...』

전화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손때가 쉽게 묻어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잘 지워지지 않는 손때는 식초를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물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 먼지가 달라붙지 않고 때도 덜 타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의 냄새를 없애려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오래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쓰레기통 밑바닥에 신문지를 몇 겹 깔고 그 위에 표백제가 든 세척액을 뿌려두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해 냄새를 막을 뿐 아니라 살균 소독의 효과도 있다. 또 쓰레기통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도 잊지 말도록 하며, 세척액으로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

㉡냉장고 청소

먼저 치약과 락스 몇 방울(작은 바가지에 물 반 바가지, 치약 3~4센치, 락스:소주컵 한잔 정도)을 물을 타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냉장고를 살살 닦아낸다. 그 다음엔 식초 몇 방울 탄 물에(작은 바가지에 물 반, 식초:소주컵 두 잔 정도) 면행주를 꼬옥 짜서 닦아내고 모퉁이는 면봉을 이용한다. 마지막에는 냉장냉동 패킹에 바세린을 발라준다.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는 압축을 강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달걀 껍질로 보온병 안을 깨끗이...



보온병은 사용하기에는 편하지만 내부를 잘 씻어내는 일이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보온병의 내부 유리를 씻을 때는 달걀 껍질을 잘게 뺏아 물과 함께 넣어 흔들어주면 더러운 때는 물론 냄새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 달걀 껍질에 붙어 있는 흰자위가 물때나 양금을 용해시키고 달걀 껍질이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룻바닥에 얹지른 기름은...

한두번쯤 마룻바닥에 기름을 얹지른 적이 있을 것이다. 당황해서 걸레로 닦아보지만 미끌미끌하고 잘 닦이지 않는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밀가루를 뿌려주는 것이다. 밀가루가 기름을 잘 흡수하므로 완벽하게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다.

㉡찾잔의 물때는 감자껍질로...



찾잔의 물때를 제거하고 싶을 때에는 감자껍질 반개분을 넣어서 하룻밤 담가두면 된다. 물때가 그릇 표면에서 떨어져나와 깨끗해진다.

김영신 부동산

"주택 구입 절호의 기회"
"최저 이자율에 집값도 급락"

"First Time Home Buyer", \$8000 Tax Credit!

*Plus, Loan Modification/융자 조정 프로그램

경제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으셨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주택 페이먼트

어려우신 분 도와드립니다. 페이먼트

삭감 또는 이자율 재조정 가능합니다.

*Also, "상업용 건물 투자/새로운 사업체 구매"

Call me for All-In-One Service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JADE
Southwest Realtors
(505) 293-5500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화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굶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E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a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E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n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5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후탈: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6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환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갤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I,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e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즐거운 놀이터를..

믿음의 일꾼을 양육할 교육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주일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놀이터 설치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바자회 및 야드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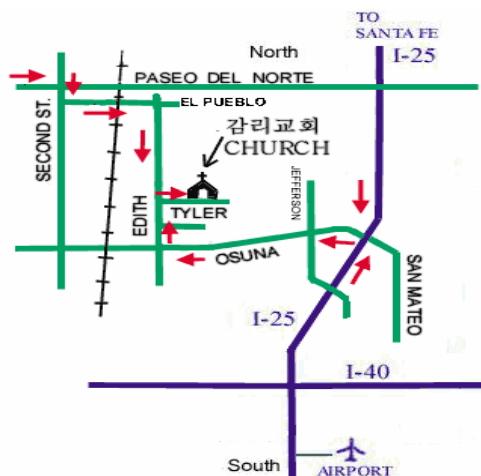
♥ 일시 : 10월 24일 (4째주 토요일)

시간 : 오전10시~오후4시

장소 : 교회 (601 Tylor Road NE, ABQ 87113)

내용 : 소품, 장난감, 책, 옷, 신발, 가방,
그릇..등 판매

연락 : 오선영 (828-3553)



구인/구직

정보마당

렌트/부동산

도와주세요